

[별첨 1] Going Global 소개



Going Global 개요

- 영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연례 글로벌 고등교육정책회의 (매년 5월)
- 2004년 시작되어 평균 150개국에서 1,000여명 이상의 교육분야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 참여
-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의 주요 아젠다를 교육정책, 경제발전, 국제협력 관점에서 논의
- 프로그램: 기초연설, 주제발표, 패널토의, 워크숍, 박람회 등

Going Global 2017 'Global Cities – Connecting Talents, Driving Change'

- 일정 및 장소 : 5월 22일 - 24일, Queen Elizabeth II Centre in Westminster, 런던, 영국
- 주요 주제
 - 연구와 혁신 : 국제협력을 통한 도시로의 지식 유입 및 창의력 증진 / 고등교육 기관과 도시, 비즈니스, 지역공동체의 연계로 인한 상호적 상승효과
 - 인재 양성 및 교류 : 숙련된 인재 양성 및 졸업생의 지역적, 세계적 영향력 증대
 - 사회와 지역공동체 : 도시 성장에 기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와 변화의 이해 및 해결
 - 리더십 : 고등교육을 통한 도시의 국제적 위치 향상 및 다양성 제고 / 정책 발의

'도시와 대학과의 연계' 주요 세션

Megacities: education in 21st century urbanism - 21 세기 팽창하는 대도시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노력을 주제로 런던, 말레이시아, 홍콩 등의 메가시티를 대표하는 패널 간 회의

Forecasting city futures: a university challenge -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대학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뉴캐슬, 모스크바 등의 도시와 멕시코, 태국 등의 국가가 진행하는 관련 사업 및 정책 등에 대한 사례 연구

Creative Hubs: igniting innovation in cities - Creative Hub(창조협업공간)이 어떻게 다양한 전문분야 간의 융합을 도모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국가의 운영 사례를 파악하는 세션

Talent development: local leadership for global jobs - 영국과 미국 등 여러 인재개발 기관들이 참여하여 지역에서의 역량개발을 통해 글로벌 사회와 경쟁에 적합한 인재를 개발하는 다양한 사례와 프로그램 소개

Global urbanization: town vs. gown? - 세계 각국의 도시 대표단이 참석하여 파리, 로마, 맨체스터, Andhra Pradesh(인도) 등의 도시에서 지역사회와 도시 간의 협력관계 활성화 및 상호보완적인 관계 개발 논의

부대 프로그램 예상 방문 기관(안)

잉글랜드 고등교육기금위원회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

<http://www.hefce.ac.uk/>

잉글랜드 고등교육기금위원회(HEFCE)는 고등교육기관에 재정 및 다양한 성격의 기금을 분배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를 탐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사회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다변화시켜 새로운 재정지원 모델을 모색한다.

지역기반 성장 아카데미 (Local Growth Academy) : 2017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반이 되는 고등교육기관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국가조정센터 (National Coordinating Centre for Public Engagement)

<https://www.publicengagement.ac.uk/>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기관들이 대중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 학술연구위원회 (Research Councils UK)와 웰컴 트러스트 (Wellcome Trust) 등의 후원을 받으며 비콘 이니셔티브 (Beac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비콘 이니셔티브는 고등교육기관과 대중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로 이를 위해 영국 전역에 걸쳐 대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6개의 거점 센터 (CUE East Beacon, Edinburgh Beltane Beacon, Manchester Beacon, Beacon for Wales, UCL Beacon, Beacon North East)와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다. 프로젝트 종료 후, 컨트롤타워가 현재의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국가조정센터로 발전하였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niversity College London)

<https://www.ucl.ac.uk/public-engagement>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은 비콘 이니셔티브의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중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왔다. 캠던과 이즐링턴(Camden and Islington)을 중심으로 런던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제시해 학생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긍정적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또한 퍼블릭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모범사례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평가 및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샘프턴대학교 (The University of Northampton)

<http://www.northampton.ac.uk/about-us/community-engagement/>

노샘프턴대학교는 대학의 사회적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lanet Too'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가 및 학생들의 주건환경을 개선하였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지역 전력 생산 등에 앞장서 왔다. 대학의 활동이 가져오는 사회적 가치와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대학의 미래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노샘프턴대학교는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힘써오고 있는데 이는 수익과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문의 및 신청 : 주한영국문화원 반주희 교육팀장

T 02 3702 0627 E Joohee.ban@britishcouncil.or.kr

